

참 각박한 사회다. 옛날 같으면 누가 자살을 했다면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사건이다. 하지만 지금은 자살을 해도 비집고 들어갈 신문의 틈새가 없다.

신문에 자살기사가 없다고 해서 자살률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단체폭적인 사고가 된다. 자살도 유명인이 하거나 특이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기사거리가 되지 못한다.

자살하는 사람이 꼭 기사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 바에야 기사에 나오지 않고는 자살하는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저 살아남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허황한 이야기 거리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살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인이건 사회적인 문제이건 자살이 우리들에게 안겨준 충격도 그렇다. 자살의 이유나 방법도 다양하게 변화를 해 왔다.

최근 자살과 관련한 통계적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2005년 자살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26.1명으로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살 사망률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은 2000년 6460명에서 2005년 1만2047명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



불자 세상보기

이근후 이근후열린마당의원

자살, 역학적인 연구 급하다

년 1만1844명에서 2005년 7776명으로 34.3% 줄었다. 그 결과 2005년 현재 자살로 숨진 사람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1.5배나 많아졌다.

자살의 원인에 대해 사회적인 환경 때문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개인의 성격이나 우울로 돌려 버리기도 한다. 그 때 그 때 편리한 합리화를 통해 살아남는 사람들을 취면하곤 했었다. 때만 하는 이야기지만 이번에도 자살 방지를 위해 범정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하러다가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자기 몸에 고의로 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자살 시도자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률을 낮추어야 할 절대 절명의 대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자살방지 대책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하나는 자살에 대한 올바른 통계와 원인규명 등 역학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집을 짓기 위한 터를 올바르게 고른

다는 의미와 같다. 올바른 기초조사의 자료가 없이는 어떤 구상도 거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깊이가 있는 조사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 역학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단편적이고 응급수준의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생명존중의식을 확고히 하기 위한 교육 실천 봉사 등 다양한 수준의 실천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봉사자에 이르기 까지 자살의 올바른 이해를 인식시키고 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의 창출이 시급할 것이다. 지금 상담자나 사회복지사 치료자 종교적 교역자 등 많은 분들이 각각 나름대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그 실천을 통합적인 이해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살요인에 대해 보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습관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자살은 거시적으로는 사회구조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시적으로는 그 개인의 성격 경향이나 아니면 우울증상 등 질병과 연관되는 복합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불자의 눈

사찰의 사회적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찰은 이제 스님들의 수행과 불자들의 기도 및 생활 공간이라는 종교적 범위를 넘어가고 있다. 종교로서의 불교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사찰의 기능을 다양화 하는 것이다. 사찰은 종교 공간에서 문화 공간으로 확대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러한 성과는 템플스테이의 '인기'에서 확인되고 있다. 템플스테이는 종교성을 강조하지 않으며 타종교인까지도 사찰 체험의 즐거움을 주고 있다. 그러한 전환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호응은 웰빙 열풍을 타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찰로서는 문화운동이라는 측면과 포교라는 측면 모두에서 대단히 좋은 기회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1번지 조계사가 올 한 해 동안 공간의 기능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한국 불교 총본산 성역화불사의 일환으로 시민선방을 개설하고 신형 문화 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발표다.

조계사의 신형 문화 도량불사 사찰 기능변화의 '모범' 되길

조계사는 한국불교의 얼굴이다. 그 위치가 수도 서울의 한복판이란 점과 조계종 총무원과 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인사동이라는 특별한 문화 공간에 인접해 있다는 점 등이 조계사의 지정학적 가치를 설명해 준다. 그런 곳에 위치한 조계사가 시민 누구나 찾아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형으로 운영된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이런 때에 맞춰 템플스테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고 하니 불교계로서는 사찰의 기능 확대를 위한 최상의 기회를 맞고 있다. 템플스테이의 운영은 적지 않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시설 개선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이제까지도 상당한 투자를 해 왔다. 올 해 정부의 템플스테이 지원 예산이 4배나 늘어난다니 사찰의 템플스테이도 4배 이상 활성화 될 것으로 믿는다. 조계사가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곧 불교인구의 저변확대로 연결된다. 사찰의 기능이 확대되는 만큼 포교효과도 커지는 것이다.

차체에 조계사 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도심사찰들도 신형 문화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다가서는 계획을 세우고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의 중앙 기구에서 지역 도심 사찰들의 개방형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관련 프로그램들은 물론 시설확충에 대한 노하우와 지역적 정서를 감안한 운영의 장단점 등을 공유한다면 지역 도심사찰의 운영도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종교는 삶과 동행하여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삶의 현장은 가장 분명한 신행의 현장이고 수행의 디딤돌이다. 불교가 살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정서들을 도심 도량의 운영 키워드로 삼는다면 사찰 역시 삶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계사의 변화가 한국 불교의 변화로 이어질지 기대한다.

이렇게 들었다

남녀평등

남녀는 일체 평등하다. 하늘은 아비이고 땅은 어미이므로 천지의 낳은 바이니 무슨 다를 것이 있으랴? <보문품경>

우리나라 성차별 조항 법률이 360여개에 이룬다고 한다. 법제처는 2월 20일 오후 '업무계획'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남녀차별적인 규정을 담은 현행 법률 360여 개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의 이번 발표는 선진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 성차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사회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구시대적인 행태가 잔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후진국형 성차별 조항을 적용했다고 하니 국가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다.

성차별은 인권침해의 문제가 크기도 하지만 국가적 사회적 선의 손실은 이루 표현하기가 힘들다. 무엇보다도 여성의 적체함과 직관력이 필요한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경제활동 및 고용에 있어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법제처가 법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이 기회에 국가의 장기적 전략으로 남녀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지침을 확고히 했으면 한다. 또 남녀평등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야인 종교계에서도 성차별을 없애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신분이나 성차별이 심한 인도에서 불교를 창교한 이유가 차별없는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시대에도 온갖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일 것이다.

■ 김원우(취재부 기자)

새해 이것만은...

출판문화 '뿌리' 부터 변해야 한다



문화는 한 나라의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척도다. 문화적인 뿌리가 없었던 원나라는 대제국을 세우고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비운의 제국이 되고 말았다. 반면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폐허가 된 이후에도 단기간에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소프트웨어는 파괴되어도 하드웨어는 그대로 견재하였기에 가능했다. 문화는 한 민족이나 국가의 흥망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문화의 뿌리를 갖지 못한 나라는 발전도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치를 다시금 되새겨 보게 하는 대목이다. 문화발전의 한복판에 출판이 있다. 우리의 출판문화가 디지털 시대를 넘어 통합과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첫째, 출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저작권 침해·할인경쟁 등 총체적 인식 개선 시급

그러기 위해서는 출판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서도 안정된 경제적 성취를 이룰 수가 있어야 한다. 일본은 출판사에서 양질의 도서를 발간하게 되면 일정부수를 정부에서 사들여 전국도서관에 보급하는 일들이 정례화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년 문화관광부와 학술원에서 우수도서를 선정하여 도서관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출판사들이 양질의 도서 출판에만 전념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또한, 현재 3천여 원의 예산으로 도서관 정보화 사업이 추진중인데 정작 도서관의 도서와 자료를 구비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판에 대한 발전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출판의 발전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문제로는 지인이 책을 출간하게 되는 경우 책을 사서 격려하거나 보탬이 되어 주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인식이

팬배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찰 같은 경우는 법보시라는 명목으로 무료증정을 은근히 부추기기도 한다. 좋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들이 많아져야 보다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무료증정이라는 형태가 잠재적인 수요를 잠식하게 된다면 좋은 출판사들이 좋은 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무단전제 무단 복사와 같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죄의식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 하고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강도질이라 한다. 그런데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엄청난 도둑질이고 강도질인데도 거기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자행한다.

넷째, 할인 경쟁이다. 요즘 일부 출판사에서 책값을 덤핑 수준으로 할인하여 출고하고 또 일부 서점에서 이를 부추기는 바람에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형 출판사들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출판사들도 속출하고 있다. 우선 출판사는 베스트셀러 제조라는 서점측의 유혹에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러다 보면 박한 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출고를 하게 된다. 그나마 성공한 도서는 다행이지만 오히려 실패한 출판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 출판시장은 점점 왜곡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독서인구의 감소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월평균 독서량이 0.8권으로 최하위라고 한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시대를 움직이는 콘텐츠를 만드는 뿌리가 대고 토대가 되는 것은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 독서가 선행되지 않고는 디지털 시대도 결코 도래할 수 없다.

최인배(학사사 편집부장)

제27기 최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미국 최면의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국제 공인 최면치료의사 자격증 취득 가능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중국 등에서 유교

개강안내 3월 8일 10:00~17:00까지

특수교육과정 매주 목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에 발음(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이프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 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정 :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시험 및 심사를 거쳐 최면지도사증 발급

미국 최면의과대학 교수 임재형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치유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국제 공인 최면치료의사(IM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학회심리학회 회원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등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 전 화 : (042) 255-0734-5
• 주 소 : 연경국악원(구)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 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 전생·빙의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